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준)’을 제/안/합/니/다.



가부장제적 사회를 조직하는 교환은 남성들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그렇지만 만일, ‘재화들(여성들)’이 시장에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그들 사이에서 ‘또 다른 교환(회제없는 교환으로서의 사랑의 교환)’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유로운 향유, 고통없는 복지, 점유없는 쾌락이 있을 것이다.

-뤼스 이리가레이(1975)

●발신: 亂場.

●수신: 경기남부 女性주의자들....

0. 들어가며

IMF, 초과착취, 강간, 성폭력, 정리해고, 자살, 가족경제 살리기, 실직가장 기살리기,.....남한의 경제위기는 다양한 여성억압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신보수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성신규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그 심각성마저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내 성폭력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¹⁾ 여성‘성’의 상품화는 그 정도와 방식의 고도화와 다양함에 질겁이 날정도며, 왜곡된 성 가치관 형성에 무차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보수화는 여성에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데, 하나는 ‘신여성’이라는 계급적 호칭을 부여하면서 여성의 자기개발과 능력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촉구하고 한편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사적영역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적 안전판, 희생양으로 여성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²⁾ 착취, 억압당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라는 말이면 통하지 않을 곳이 없는 세상. 자본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공세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상황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다시 살아나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여기에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생계보조자’라

1. 최근 이화여대 온라인 성폭력 사건, 성대 새터 성폭력사건, 각 학교 새대학교와 동아리MT등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은 그 실사건의 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현재 대학내 만연해있는 성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성문화의 고착화는 성폭력의 문제로 표출되거나 대학내, 비인격적이고, 비민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2.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쟁취한 후 처음 내놓은 슬로건이“여성이 있을 곳은 부엌, 침대, 교회뿐이다.”였다는 말이었다. 이말은 대공황이라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쉽게 1차적 희생양으로 설정했던 대상이 바로 ‘여성’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는 전제속에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가족임금제,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는 무분별하게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다. 결국 남성=생산노동(직장) 여성=재생산 노동(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여성이 무임으로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을 무시하고 자본의 이해인 생산성을 잣대로 하여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저지위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사회내에서도 여성문제는 어떤 다른문제보다 부차화된다. 이것은 역사적 성통제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성의 변수를 가속화하면서 대학사회를 가부장적 구조와 성적 분할, 배제, 차별을 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더욱 공고히 그 역할을 위치지운다. 똑같이 대학이라는 공간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가부장제하의 순응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요구되면서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여성이 다수라는 이름만으로 그 가치와 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보수화 될 수록, 총체적 위기가 강조될수록, 다양한 사회적 주체는 침묵하기를 강요당한다. 획일화의 강조와 현상적인 경제회생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문제와 투쟁을 개인적이고,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착취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권은 거꾸로의 역로를 걷고 있다.

여성권의 주장은 사적인 것의 정치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반 신자유주의 저항은 다양한 현장과 연대속에서 보다 확장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금, 여성들의 다양한 연대로부터.....

1.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 제기배경.

작년부터 제기되어온 여성연대모임, 연대체에 대한 필요성은 대학사회 학생여성운동의 세력화에 대한 고민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성연대모임, 여성운동단위들의 연대모임은 기간 여성연대회의나, 여노대연³⁾ 등을 통해 실현되었었고, 아직도 그 문제의식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여성운동의 대중적, 독자적 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과 형태에 대한 해답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역내에서도 그에 따른 고민의 실천태를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의 구성과 더불어 기간에 논의되고 이후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세력화와 그 방향에 대한 궤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연대모임-운동-은 일차적으로 여성운동 단위들의 세력화라는 의미속에서 여성운동단위간의 연대활동을 근간으로 한다. 학내외적 정세에 주목하면서 여성 억압의 현실을 폭로하고 여성주의적 대안적 가치들을 생성해내는 운동, 여성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독자적 실천양태에 대해 고립적,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실에 주목할 때 여성운동의 대중적 독자적 세력화라는 것은 일면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반편향적 경향이나 피해의식이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존재했었고,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을 열렬히 비판해오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철저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을 수행하고 동시에 연대세력으로 바라볼수 있는 여유를 지녀야 한다. 또한 다양한 대중운동세력과의 사회적 유대와 윤리적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여성주의적 관계맺기-비억압적 연대-,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은 일차적으로 여성운동의 대중적, 독자적 세력화라는 새로운 실천을 모색함에 있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지역의 구체적 상황과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이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지역 전체 운동지형속에서 나름의 의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세력화는 마찬가지로 지역내의 다양한 운동세력과 관계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며, 지역 여성운동의 진지한 발전에 대한 고민까지 수행하면서 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 일단, 대학여성운동의 올곧은 전진을 위해서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이 그 초행의 선두를 달려나갔으면 한다.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현재- 독자성과 고립성의 경계긋기를 뛰어넘기 위하여

3.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는 작년 사회 여성운동단체들과 함께 여성노동권 확보와 신규여성실업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벌여내었지만, 4차T집회 결합이외의 어떠한 성과물도 남기지 못한채 해소(?)되고 말았으며 현재 살맛나는 세상 노동팀으로 전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상은 다르지만 여성 노동권확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여성운동이 중심운동에 종속된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것은 성의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분석부재와 여성운동의 독자적 활동 부재, 그리고 여성운동의 전략의 부재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는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 활동을 구축하려고 하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운동은 과거의 주변적이고, 종속된 활동으로 진행되어왔던 잔재와 여성운동의 전망이 불투명 속에서 과도기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주변적인 운동형태로 사고하는 여성운동진영과 전체운동과 여성운동과의 관계설정이 부재한 속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적 활동을 분리주의라 비판하는 진영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성운동은 끊임없이 독자성과 고립성의 경계극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성운동은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들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주변적인 운동으로 존재하였던 여성운동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독자적인 활동, 이론등등이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안에서 막 태동하려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된 사상적 지반, (노동, 통일이라는 중심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대한 성급한 재단과 가치절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학생운동과 주변운동으로의 여성운동이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모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이 여성운동과 동등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시덥잖은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당연하게도 학생운동에 관심있는 여학생운동 집단은 학생운동에 복무하는 부문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외치며 고립되었다. 학생운동과 여성운동과의 보이지 않는 불신과 여성운동의 고립성의 문제는 과거 학생운동의 이념과 구조속에서 잉태된 것이다. 학생운동의 위기담론이 폭발하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기간 학생운동 안에서 배제되었던 대중운동들의 활성화 과정과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진척시켜야 한다.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인 활동을 구축하라

기간 여성운동 단위의 활동은 중심운동에 종속되어진 채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여성의 억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른 문제설정하에서 취하게 된 운동전략이었던 것이다. 즉, 대학사회 뿐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은 90년대 초반까지 여성억압의 원인을 독자적인 모순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운동의 변혁의 하나의 과제중 하나라고 사고하면서 전체운동속에 종속되는 운동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의 현실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여성억압에 대한 독자모순의 파악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전략을 구축하려는 시점인 것이다. 대다수의 총여학생회가 대학사회의 여성운동단위로써 자기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나 자생적인 여성운동 단위들의 형성은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의 흐름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사회내에서 취약한 운동지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 외부, 내부의 원인이 '따로 또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의 요인은 기간의 여성운동 역사의 한계로 인하여 여성억압의 명확한 입장을 내오지 못한 운동전략그이 부재가 있으며,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두 번째는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불신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가치절하를 해온 학생운동에 존재한다. 학생운동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의미성들은 구조의 모순으로 파생된 문제임을 여성운동단위들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운동단위들의 정체성확립과 그속에서 합의되는 여성운동 전략을 통해서 여성운동단위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풀어나가 하며 그 독자적인 활동은 여성운동이 하나의 운동세력집단으로 존재함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지반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사회내에서 운동 안에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97전국청년학생한마당 자료집 여성운동총론2中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현재 대학사회속에서 여성운동단위는 스스로의 여성운동단위로써의 정체성확립과 그속에서 합의되는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내야 하며, 그 독자적인 활동은 여성운동이 하나의 운동세력집단으로 존재함을 스스로 규정해내고 여성운동에 대한 지반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학생사회내에서, 운동내에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의 각 학교가 처한 상황과 실질적인 조건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학생여성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지역 여성운동의 진지한 고민의 출발과 학생 여성운동의 대중적 세력화는 경기남부 여성주의자들의 힘겹지만 여

럿이 함께 한발자국씩 전진하는 힘속에서 실현되어질 것이다.

2.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준)을 고민함에 있어 고려할 몇가지 것들.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을 구성하기 위해 진행된 초등모임속에서 논의된 공동의 목표와 방향은 일단 함께하고자 하는 여성운동단위들은 누구든 제한하지 않고자하며(일개인이더라도 됩니다.) 각 단위의 활동을 보다 풍부히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속에서 공동의 목표-정세적으로, 여성운동의 과제등-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2-1. 경기남부 여성연대 모임의 방향

(1) 사안별 연대를 뛰어넘는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인 활동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되었던 학생여성운동의 현재적 고찰을 통해 여성운동단위들의 정체성 마련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내고 여성운동이 하나의 운동세력으로써 존재함을 스스로 규정해내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생사회내에서 여성운동의 발언력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한 입장마련을 통해 여성운동에 대한 기반확대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과 사안에 따른 연대는 현실운동에 있어서 항상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여성운동단위간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사안별 연대들내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에 안정적인 연대모임을 통해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자리매김과 정체성 확립,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일수 있겠다.

공동의 경험과 유대를 통해 여성운동주체 재생산에 대한 기나긴 고민을 풀어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여성적 관점으로 현시기 정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경기남부 여성운동진영의 공동의 입장과 활동, 과제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공세적으로 할 수 있다.

여성억압에 대한 형태는 시대마다 다르게 표출되며 동일한 방식과 형태를 취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여성이 발 딛고 있는 현재, 여성억압이 드러나고 있는 물질적 장치,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기본일 수 있겠다. 주요모순과 부차적 모순이라는 설정속에서 하나의 모순이 해결되면, 다른 모순도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질 수있다는 문제설정은 하나의 중심으로 환원 할 수 없는 다양한 모순에 입각한 대중운동의 독자적인 실천을 불가능하게 했기에 독자적인 역사와 질을 갖는 운동은 그 운동의 관점과 분석석에서 실천까지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독자적 세력화는 여성운동단위만의 실천만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입장만을 강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모순이 존재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모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며, 여성운동단위는 이에 근거한 여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적 쟁점화하여 정세적 실천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 더욱이 반여성적인 신자유주의 재편은 여성운동단위의 급진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대학사회안에서, 전체운동속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운동세력으로서 여성운동이 존재하기 위한 자리매김과, 다 나아가 다양한 운동세력과 윤리적 연대,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모색하기 위해

여성연대의 실물화된 흐름은 전체 학생사회, 운동속에서 여성운동의 쟁점과 대안들은 확산시켜나감으로써 보다 확장되고 단단해질 수 있다. 또한 여성운동단위로써 다양한 운동세력과의 비억압적 연대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제 실천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여성운동단위의 의제와 질서, 그 신나는 변화를 위한 줄타기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2-2. 구체적인 운영과 위상(목표)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의 구체적 목표를 간단히 서술했으면 하는데 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앞글들을 정리

하는 수준일 것이다.

㉑ 경기남부 연대모임에 함께하는 단위들간의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각 단위 제안 논의는 다양할 수 있다- 여성운동단위들의 활성화에 주력한다.

㉒ 여성운동의 의제와 내용에 대한 안정적인 분석과 입장을 마련하고 대학사회 여성운동의 정체성 확립, 세력화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㉓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현시기마다의 공동의 실천과 연대를 조직한다.

㉔ 사회단체나 타 운동단위와의 소통과 연대활동을 고민하며 지역 운동질서를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낸다.

연대모임의 운영은 일단,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단위는-또는 개인- 모두 가능하며, 단위 대표자가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단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내에서 필요하다면 역분배치에 따른 소모임의 운영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현재는 논의중이다.

▶ 모임의 주기: 일주일에 한 번.

▶ 현재 구성된 단위: 수원대 여성 행동위, 성대(울전) 총여학생회, 아주대학교 총여학생회

▶ 공동사업: 경기남부 여성연대모임 소식지, 깃발, 통신방 개설

3. 시기별 사업 -상반기를 중심으로-

1) 4.30 함께가기와 경기남부 여성연대 체험MT
시기: 4.30 - 5.2일

2) 경기남부 여성연대 (열린)세미나(가안)

3)